

정읍시 입암 대흥권역 개발사업 40억 투입

〈접지·마석리 6개 마을〉

생활기반·지역경관·소득증대·역량강화 등 4개 분야 테마거리·예술체험 시설 조성 등 주민의견 적극 반영

정읍시가 입암면 '대흥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하 대흥권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하나로 주관한 권역단위 종합개발 공모사업에 지난해 10월 입암 대흥권역(접지·마석리 6개마을)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4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지역경관분야 사업 ▲소득증대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 총 4개분야로 나눠 대흥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으로 공동주차장 조성하고 건강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지역경관분야 사업'으로 가로경관 및 보행로 정비와 함께 테마거리조성, 안내도 제작 등을 추진한다. 또 '소득증대사업'으로 예술체험시설과 직물체험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 및 리더교육과 주민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다.



정읍시 입암면 대흥권역(접지·마석리 6개마을) 주민들이 지난 15일 입암면사무소에서 열린 기본계획 수립 위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2013년 공동체 육성 전담부서 신설 이후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손을 거쳐 직접 완성해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민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확산시키고, 주민의식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군산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 발간

맛집 등 담아 2000부 배부

군이 총망라돼 있다. 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관내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전통 시장 이용과 은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19일부터 23일까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주요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해 지역생산품 구매를 요청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생산품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면서 “그동안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해 온 지역상품 애용운동을 기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규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과 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모두 수록한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해 관내 기관·단체와 학교, 기업체,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했다. 가이드북에는 Buy전북 군산시 선정업체 5개, 사회적기업 13개, 마을기업 4개, 협동조합 24개, 전통시장 11개, 지역특산물 47개, 마곡초리장 4개, 군산팍 등 특제품, 착한가게 선정업소 28개, 관내 925개 기업생산품과 맛집, 모범업소 등 음식점 현황, 관광호텔·숙박업소 현황

2년간 3번 바뀐 나주시 경제건설국장... 노조 “전남도와 인사교류 중지해야”

산하 8개부서 제기능 못해 자체승진 제도 도입 촉구

나주시 경제건설국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전남도와 나주시간 인사교류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나주시는 전남도와 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도

청 기술직서기관을 경제건설국장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2014년 2년간 나주시로 부임한 경제건설국장 3명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장모 국장 6개월, 김모 국장 1년, 남모 국장 6개월만에 교체됐다. 이들은 공통으로 “나주발전과 지역경

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부임소감을 밝혔지만 불과 6개월에서 1년만에 도정으로 복귀했다. 이로 인해 경제건설국의 공백기가 계속되면서 경제건설국장 산하 8개 부서 간부들을 비롯해 직원들의 허탈감이 상대적으로 수위에 없다. 이에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전남도와의

인사교류에 반발하며 자체승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나상문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폐단을 문제삼아 나주시 경제건설국장 자리에 자체승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도와의 인사교류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남원 시설원에 품질 개선 총력

지역특화품목 추진회의 개최

남원시가 올해 시설원에 품질 개선사업에 적극 나간다. 남원시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5년 시설원에 품질 개선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평가자료 작성과 지역특화품목(오이·멜론·파프리카) 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원시 조합공공사업법인 대표와 5개농협 담당자, 8개 시설원에품질 개선사업 관련 작목반 임원들이 참석했다. 시설원에 품질 개선사업은 시설원에

농가의 시설현대화 증·개축을 위해 지난 20011~2014년 434농가에 4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기준이 변경돼 '기존시설의 현대화'(기존 시설에 양액시설과 무인방제, 관수시설 등 시설내부에 현대화시설을 설치)에만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남원시 원예허브와 관계자는 “올해는 현대화 사업만으로도 많은 시설원에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올해 시설원에분야 예산확보와 투명성·공정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규식기자 jgs@

순창군 테마민박 육성 관광활성화

발효식품 등 지역 특색 살려

최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창군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민박사업 활성화를 통해 돈을 버는 농촌 6차 산업화에 본격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민박업소 순창군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전기 소방장비 등의 안전점검을 했으며, 1등급 민박시설 벤치마킹 계획도 세웠다. 군은 최근 민박업소 업주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민박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순창군 설태승 친환경농업 과장은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민박 활성화 사업은 농촌 6차 산업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도 섬진강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최근 집중 개발하고 있는 섬진강 주변의 민박시설들을 테마를 입혀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민박업소 순창군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전기 소방장비 등의 안전점검을 했으며, 1등급 민박시설 벤치마킹 계획도 세웠다. 군은 최근 민박업소 업주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민박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순창군 설태승 친환경농업 과장은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민박 활성화 사업은 농촌 6차 산업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새 얼굴

“주민의 안전·행복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을수 장성경찰서장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취임한 장성경찰서 김을수(56) 서장은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추진해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직원들에게 “정성과 진절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경

찰이 될 것”을 강조했다. 순천 출신인 김 서장은 전남대 법학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9년 순경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광주 북부경찰서 정보과장, 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계장 등을 역임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체감·공감·실감하는 경찰활동 펴겠다”

정경재 화순경찰서장

“주민들이 체감, 공감, 실감하는 경찰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9일 부임한 화순경찰서 정경재(55) 서장은 “주민들에게 공감받는 생활민체의 확립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있는 경찰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 전문성있는 위기대처능력을 갖추나갈

다”고 덧붙였다. 나주 출신인 신임 정 서장은 조선대 행정대학원 법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광주 동부경찰서장, 광주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 등을 지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금당공인중개사' and '남도공인중개사'. The '금당'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 Gwangju, including locations like Gwangju University and Gwangju Station, with prices ranging from 200 million to over 1 billion KRW. The '남도' section lists properties in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like Gwangju University and Gwangju Station, with prices ranging from 200 million to over 1 billion KRW. There are also advertisements for legal services, including '법원경매' (court auction) and '부동산 제테크 전문' (real estate investment expert), and a large advertisement for '단비플라워' (Danbi Flower) offering floral services and gift baskets.